

## ▶ 매일 INDEX



3면

이승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2021년 6월 7일 월요일(음 4월 27일) 제2793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 “전·월세 등 보편적 지원 확대를”

청년복지 격차 해소 위해  
도, 중앙·전북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간담회서 건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센터 운영비 등도

전북도가 중앙과 전북 간 청년정책 공유와 청년 상향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중앙·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승윤 중앙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이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의 청년정책 소통강화를 위해 연석회의 정례회를 시도지사협의회에 요구했다.

이어, 중앙 및 전북 민간 청년정책 위원 10여 명이 모여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1년 중앙·전북 청년정책 추진계획 설명, 주요 청년지원 사업 및 우수사례 소개, 지역 의제 및 견의 사항, 청년정책의 지역혁력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도는 청년 유입과 인구소멸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지속 가능한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 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이승윤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앙위원들과 중앙·지방의 청년정책 소통강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영비 지원, ▲청년복지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등 보편적 지원 확대를 중앙에 건의했다.

이승윤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의 청년위원회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중앙·전북간의 지속적인 소통, 협력의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부위원장과 만

난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앙과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청년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기반해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사업

의 조정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지난 2017년 9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현재 2기가 운영 중이다.

전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5개년 계획인 전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고, 2018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 도내 곳곳 현충일 추념 행사 진행

16일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열어

전북도가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해 도내 전역에서 국기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추념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현충일호국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우 전북도의회의장 김천석 제35보병사단장, 진교훈 전북도경찰청장, 심민 입실 군수, 보훈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

모하고,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 속에 거행됐다.

아울러, 이날 도내 13개 시·군에서도 각 시장·군수 주관으로 군경묘지 등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와 전북동부보훈지청이 함께 6·

25전쟁 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기억해요 1950’ 웰린지(SNS)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전북보훈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역경을 딛고 도민의 귀감이 된 독립유공자 등 10개 부문 수상자를 시상한다. 제71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이

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참전 영웅의 대면 기념행사는 최소화하고, 현수막 등 홍보 위주의 행사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도민과 함께 기습 깊이 새길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 산학융합플라자 신축 ‘탄력’

전북대, 국가예산 확보 통해 작년부터 275억원 투입  
도·전주시 각 50억원씩 매칭 지원 사업 추진 ‘날개’  
대학 연구진·학생 등과 함께 지역발전 시너지 창출



이 함께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월드클래스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의 플랫폼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와 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은 지역발전 동력의 주체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을 통해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 소재 기업들, 일본시장 개척 시동

##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

사가 참가해 총 23건, 42만5,000불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무역협회는 전시상담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유명 아울렛에서 섭외해 전시상품에 대한 리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했다.

이경일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9로 인해 해외전시회 참가가 계속 힘들어져서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쉽다”며 “동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전북도, 전주시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학교는 동사다

꿈꾸고 노래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날마다 배우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학교는 365일 멈추지 않는 동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